

## 포장산업 발전 '포장 컨설팅 이원화' 통해 가능

김영호 /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소장,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회장

포장산업의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장 컨설팅이 그 중요도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포장기술사 및 포장 컨설턴트 1호인 한국포장기술연구소 김영호 소장을 만나 견해를 들어보았다.

'포장'이란 단어조차 생소했던 1963년 육군기술연구소 식품연구과 내 포장 연구실이 신설되면서 '포장'과 인연을 맺게 됐다는 김영호 소장. 이후 김 소장은 약 40년 동안 업계 일인자로 국내 포장산업 대변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김영호 소장은 1972년 국내 포장컨설팅의 산실인 한국포장기술연구소를 설립하며 본격 포장컨설팅 사업에 착수, 포장 업계의 크고 작은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며 포장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


국내 우수 제과 및 전자업체의 진단 업무를 통해 포장 표준화를 통한 적정 포장을 유도했는가 하면 건설·전기 업체들의 포장 설계 업무를 맡아왔다. 또 수입에 의존해 오던 홍삼포장을 국산화시킴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도 도모했으며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지도에 주력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포장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김영호 소장은 "선진 기업 패턴을 지닌 업체일수록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포장 컨설팅의 이원화를 통한 전문회만이 컨설팅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포장의 65% 가량이 식품포장인 점을 감안했을 때 외국의 경우 포장 컨설턴트들은 식품 자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그에 부합해 포장 자체에 대한 지식으로 마케팅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업화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포장 컨설턴트들의 인력 수급이 시급하다"며 포장 컨설팅에 대한 포장업계의 인식을 촉구했다.

포장 클레임에 대한 감정을 비롯한 포장사업 타당성 검증, 고차적인 정보 조사 영역 등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 없이는 불가능한 컨설팅의 증가로 새로운 컨설팅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재, 국내 포장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김영호 소장이 이번에는 포장 컨설팅 활성화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 

박조혜 기자